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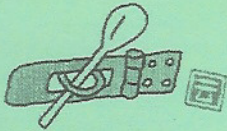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8주일(목주기도 성월)
제28권 46호(가해) 2008 · 10 · 12

[묵상]

스쳐간 인연 아쉬워하던 당신도
오지 않을 인연 기다리는 당신도
오늘 내가 만난 인연입니다.



소중한 당신...
소중한 오늘...

구상열 하상 바오로 · 만화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
노사연은 만남을 이렇게 노래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램인 만남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모든 만남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도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 말이다.
지나간 과거 안에서 만날 수 없으며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 안에서 만날 수도 없다.
오직 지금이라는 현재에서만 만남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남을 인연(因緣)이라 한다.
인연은 어떤 사물과의 관계,
사물들 사이에 맺어지는 연줄을 말한다.
결과를 내는 직접적인 인(因)과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연(緣)이 서로 만난 것이다.
우리의 만남을 위해 주위의 모든 것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다는 말일게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것이고
나랑 만난 네가 소중한 것이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영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20-8240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김순성 마리아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엘리사벳, 백삼위마라톤 동호회
주 일 낮 미사	(연)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김진수 미카엘, 유승래 아가다, 이은완 야고보, 유연홍, 이석중, 김신혜, 엄은섭 도로테오, 김금봉
	(생)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녜스 가정, 최석원 안드레아와 엘리사벳, 이영희 카타리나, 이윤조 글라라, 김종환 야고보 가정, 정동호 하상바로, 이춘설 카타리나,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김수환 추기경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5,6-10
화답송	◎오래 오래 주님 궁에 살으오리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몸 뉘어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돈아라.◎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되다. 내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되다.◎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오리니, 오래 오래 주님 궁에 살으오리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4,12-14,19-2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 음	마태오(Matthew) 22,1-14<또는 22,1-10>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 하나도 모자라지 않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4	334
봉헌	377	259,250
성체	367	306,300
파견	357	238

19. 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 직무 사제직

사제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유일한 대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셨으며,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여 제사를 바치심으로써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개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명이 계승되도록 하느님께 제사를 거행하고(사제직), 하느님 백성을 돌보며(왕직),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예언직) 직무를 사도들에게 맡기셨다. 사도들 역시 예수님께 부여받은 이 직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자신들의 후계자(주교)와 그 협력자(신부), 주교와 신부를 도와 줄 봉사자(부제)를 선발하여 기도와 안수로 직무를 수여했다.(사도 6,3-6) 이러한 직무는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성품성사의 세 품계

직무 사제직은 예로부터 주교, 신부, 부제의 세 품계로 수여되었다. 주교는 성품성사를 통하여 이 성사의 온전한 충만을 누리게 되며, 서품된 주교는 주교단에 들게 되고, 그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교구)의 볼 수 있는 으뜸이 된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 사도적 책임과 교회 전체의 사명에 참여한다. 신부는 사제로서 지니는 품위는 주교와 같지만 사목직 수행에서는 주교들에게 종속된다. 신부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단을 형성한다. 부제는 교회의 봉사 임무를 위하여 서품되는 성직자로서 하느님 말씀과 전례에배의 봉사, 사목적인 지도, 자선 사업의 중요한 임무를 받는다. 오늘날 부제품은 사제품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부제 고유의 직무만을 평생 수행하는 '중신부제'도 있다.

성직에 나아가려는 자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유로이 독신생활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학교 안에서 소경기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실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사제품의 과정 단계인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뜻을 공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교회의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대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티토 1,6-9)

(◆계속 - CBCK 제공)

초대받은 당신

로마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의 실무자로부터 빨간색의 긴급표시가 달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라디오 회의(6월19일~21일)에서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 한국의 평화방송 라디오에 대한 발표를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늦게 청탁해 미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때늦은 초대가 제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해 놓아야 할 일도 산적한 가운데, 발표문을 준비하고 또 국제회의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선뜻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톨릭 라디오로 평화방송을 선정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평화방송을 국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초대에 응했지만, 로마로 떠나는 전날 밤 늦게까지 발표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세계 45개국에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사흘의 일정으로 열린 가톨릭 라디오 회의는 둘째 날 낮한 시 경에 교황님 알현을 마쳤습니다. 교황청궁 3층의 접견실에는 의자가 줄지어 있었는데, 첫 번째 줄에는 사회홍보평의회 의장인 첼리(Claudio Maria Celli) 대주교님을 비롯해 각국에서 참여한 주교님들과 고위성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던 실무자가 발표자들은 두 번째 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교황님이 참가자 전체에게 훈화를 마치신 후, 개별 알현이 시작되었고 사정상 두 번째 줄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교황님의 손을 맞잡고 친구하고 대화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발표 초대를 수락했던 것이 저에게는 교황님을 알

현하는 뜻밖의 행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복음(마태 22,1-14)의 비유에 나오는 자기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임금처럼,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초대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비유에서처럼 초대를 거절하고 자신의 일에 매몰되어 발으로 가고,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러 갑니다. 자신의 일과 장사라는 현실의 삶에만 매달려 하느님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할 때, 비유가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후회와 슬픔이고, 결국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추방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는 하느님의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초대를 수락하여 믿는 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초대를 수락합니다.

신앙인의 지상 여정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초대를 기꺼이 수락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구원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느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영춘 베드로 신부<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강정현 시몬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배재일 미카엘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김금자 테레사	권순길 세실리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1반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기도 시간은 짧아지고 목상이 부족한 이 시대에 목주기도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목주기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신비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과 함께 나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과 본당의 성화를 위해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양업회 족구시합

- 일시 : 오늘 주일(12일) 낮미사와 친교 후 오후 1시30분
- 장소 : 축구장, 각 단체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제13차 홈리스 피플 돕기 행사

- 롱비치 무숙자 쉼터에서 음식봉사와 이발봉사
- 봉사자들은 오늘 주일 오후 3시까지 주방앞 친교장에 집합
- 사회복지분과 박홍룡 요셉 위원장 ☎(310)283-5879

◆ 백삼위 신심단체 가입 안내

10월은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의 달입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일 정 : 매월 첫째주일에 계속 시행
-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위원장 (310)694-4585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바오로 서간'개강 안내

- 수요일 : 10월15일 오전 10시, 회의실
- 금요일 : 10월17일 오전 9시30분, 강당
- * 신청 : 황지영 안젤라 ☎(310)938-8089

◆ 어린이 놀이터 기금마련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위한 기금마련 '장터 행사' 협조자들 외에 따로 도네이션 해주신 이민상 요한 형제와 문영일 안토니오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 오늘 주일(12일)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13일(월) 콜럼버스테이 공휴일로 인해 오늘 주일은 두 학교에 수업이 없습니다.
- ◆ 주일학교 자녀들의 사진부착 동의서 제출 바랍니다.
 - 학생들의 사진을 교실에 부착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동의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12일) 학생미사 후 현관에서 양식을 받으신 후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 한국학교에서 한영사전 기증 받습니다.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영사전이 있으면 교재로 필요하오니 보내주십시오. 이헬레나 교장 ☎(310)347-8765
- ◆ 한국학교 교사연수(유초급 과정)
 - 일 정 : 10월14일~11월11일, 매주 화/금 8주간 16시간
 - 내 용 : 유치원/초등학교 교수학습
 - 장 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신청비 : \$20
 - 8주 이수 후 수료증 배부

◆수요 예비자 교리반(2009년 부활반) 모집

내년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신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환 영 식 : 10월19일(주일) 11시 미사 중
- 교리시작 : 10월22일(수) 오후 8시10분, 2층 교리실
- 신 청 :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작성

◆ 첫 영성체 사진 찾아가세요.

- 지난 6월15일 첫영성체한 학생들 중 아직 사진을 찾아가지 않은 학생들은 사무실로 오세요.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12일(주일) : 대건회(장터 뒷풀이 잔치로 전신자들에게 메추리 구이 등을 대접합니다.)
- 10월19일(주일) : 토런스 북1/2반(소고기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숙경	강인모	구본엽	김대우	김양금
	김영정	남명자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민소예
	박동수	박상준	박선희	박순자	박영룡	박영식
	박정희	박준구	박희자	방정복	배기엽	성낙호
	송근섭	신대철	안재만	오수인	오일순	유영균
	유정복	유희연	이경용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석제	이연행	이영숙	이용식	이은록	임종택
	임현기	장숙환	장영진	정동호	조경림	조운영
	조준제	조화숙	최길주	한창주	홍석철	황학수
	합계 : \$6,320					
	미사헌금 : \$2,770					
	2차헌금 : \$862					

성전헌금	강숙경	강인모	구본엽	김대우	김양금	남명자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민소예	박동수	박상준
	박선희	박순자	박영룡	박정희	박준구	박희자
	배기엽	성낙호	송근섭	송종두	신대철	안재만
	오수인	유영균	유정복	유희연	이경용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석제	이영숙	이용식	이은록
	임종택	임현기	장숙환	장영진	정동호	조경림
	조운영	조준제	조화숙	최길주	한창주	홍석철
	합계 : \$6,080					
	감사헌금 : 이영희, 이진행, 김숙애					

공지 사항

◆고 김금봉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삼위 주일학교 초등부 주임 김정심 크리스티나 자매의 모친 (사목회 김중섭 마틴 총무의 장모님) 김금봉 님(80세)이 지난 8일(수)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숙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연도는 9일 저녁미사후에 드렸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례절차에 관한 세미나

- 일 시 : 10월19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내 용 : 장례 준비 및 절차, 묘지와 관련된 보험 안내 등
- 문 의 : 사회복지분과 박홍룡 요셉 위원장 ☎ 283-5879

◆ 요셉회/안나회 가을 온천관광

- 때,곳 : 10월28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55명 정원, ● 회비 : 교우 \$15, 외부인 \$25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회장 ☎(310)518-1736
권영옥 루치아 총무 ☎(310)720-2876

남가주 소식

◆ 파티마 성모님 발현 91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10월13일(월) 오후 7시
- 장 소 : LA 성 바실 성당
- 주 례 : 김재섭 요한 마리아비안네 신부

◆ 남가주 푸르실로 25주년 기념 울프레아

- 일시 : 10월25일(토) 오전 10시~오후6시
- 주제 : 변화된 신앙인으로 함께 나누는 삶
- 미사집전/강의 : 장봉훈 주교(청주교구장)
- 장소 : LA트레이드 테크니컬 칼리지(위싱턴+그랜드)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발현 성지 순례

- 출발 : 매월 셋째주 목~일(3박4일)
- 경비 : \$950(LA 출발 기준. 항공료에 따라 변동가능)
- 후원 : 가톨릭신문사, 주관 : 투어월드 ☎(213)385-0043

◆ 제 27회 남가주 한인천주교회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 일 시 : 11월27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30분
- 장소 : Eldorado East Regional Park (Garden Grove Area)
- 주 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주제 :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 미사 후 행사 : 가장행렬, 줄다리기 등 각 본당 참여
- 준비위원회 : 성엘리사벳 한인천주교회 ☎(949)725-9348

이번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수산나 (949)679-4321 10/17(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전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742 10/10(금) 오후 8시
		정중미 클라라 373-1237	정중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데레사 618-8499 10/11(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현정 헬레나 543-4593 10/7(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최경숙 수산나 320-0855 10/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김파센시아 892-9651 10/15(수) 오전 10시30분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10/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715-2609 10/10(금) 오후 7시, 성당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최기남 야고보 569-3940 10/11(토) 오후 7시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755-4899 10/7(화) 오후 3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송중두 요한 544-1267 10/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0/11(토) 오후 6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0/10(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이수산나 265-0495 10/16(목) 오전 10시, 성당

< 어허! 또 가을이네 >

(가을에 스며드는 짧은 생각 넷)

[하나!] 또 가을이네 ...

한 포기
두 포기
가을 김장배추 세는 소리가 아냐.

세 포기
네 포기
이번 가을에 행복을 세는 소리야.

한 가지 포기, 두 가지 포기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그렇게 기술이 들어가는 소리야.
삶의 기술 말이지.

[둘!] 어찌란 말이나?

어찌란 말이나?
그렇게 낙엽 하나 내 곁에 떨어지면
철 이르다 말 할 수도 없지 않더냐?

어찌란 말이나?
내 아직 생각 접지 못하고 있건만
익은지 오래된 감 한 톨 떨어지면 ...

[셋!] 이상도 하지 ...

이 사람도 똑똑해
저 사람도 똑똑해
안 똑똑한 사람이 없지
그런데 이상도 하지.
세상이 똑똑히 돌아가질 않아.

앞집 아이도 영리해
뒷집 아이도 영리하고
어리바리한 아이들이 없어.
그런데 이상도 하지.
제대로 아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

저기 할아버지도 노련해.
여기 할머니도 노련하고
어수룩한 노인들이 없어.
그런데 이상도 하지.
후련하게 매듭 푸는 노인 없어.

[넷!] 떨어지지 못하는 것은 ...

가을이 익어 가는데
가을이 떨어지는데
아직도 설익어 서성이고
지금도 떨어지질 못하고
움켜쥐고
가을바람에 부들거리는 이
겨울서리 벌써 명들어 간다.

◆ 최진수 에우세비오 / P.V 1반

< 가을 우체국 앞에서 >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오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 윤도현